

논문

근대 중국의 민주 개념

- 민본과 민주주의 간극

양일모*

목 차

- I. 머리말
- II. 근대 중국의 '민주' 표상과 체험
- III. 민주주의 유교적 정당성
- IV. 민주와 유교의 갈등
- V. 맺는말

한글초록

이 연구는 19세기 중엽에서 1920년대 초까지 중국의 지식인이 서양의 민주 제도를 표상하는 방식을 주로 개념의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말 민국 초기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democracy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과정은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서양을 이해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제도가 왜 중국에 필요하고 종래의 군주제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묻어가는 내적 반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의 정치 이념이 자주 동원되고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양의 정치체제를 둘러싼 당시 지식인들의 지적 담론을 분석하면서,

* 서울대학교

민주를 정당화하는 논리, 의회 제도를 긍정하는 논리, '민주'에서 표상된 민의 정치적 위상과 군주와의 관계, 나아가 유교적 민본주의와 서양의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민주, 민본, 근대중국, 유교, 의회, 공화, 중국 지식인

I. 머리말

191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민국'의 칭호를 단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탄생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200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왕조체제가 근대적 모습으로 바뀌면서 민(民)이 주인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새롭게 제시된 획기적 사건이었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의 정체(政體)의 변환은 근대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고투 속에서 전개되었다. 중국의 역사에서 수많은 왕조의 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君)·신(臣)·민(民)으로 구성된 위계적 질서는 유교적 이념과 연동되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중화민국의 출현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국가와 정치의 원리 그리고 정치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청했다.

근대 중국에서 사회적 질서 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근본적 반성은 일차적으로는 외래의 충격에 의해 요청된 것이었다. 아편전쟁(1840년) 이래 서양으로부터 다가오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 속에서 서양은 부유하고 또한 강력한 국가로 표상되기 시작했다. 서양이 부강한 원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양인들이 사

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원리를 학습하고자 했다. 19세기 중엽 이래로 서양에 관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서양의 정치체제는 민주제 혹은 공화제로 파악되었다. 1880년대 이래로 청조에 대한 정치개혁을 주장한 일부 지식인들은 민의를 수렴하는 서양의 정치적 제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의회의 설립과 헌법의 제정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로 설정했다.

청조의 개혁을 위해 서양의 정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종래의 정치 질서 체계에 대한 변화 혹은 개혁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체의 변화 혹은 의회의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장이 왜 정당한지를 논증해야 했다. 한편 외부로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 내부에서 반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수용을 반대하는 논자들도, 단지 그것이 외부의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넘어서, 기존의 질서가 정당하고 서양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중국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이처럼 새로운 정치제도를 구현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내적으로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문제이며, 동시에 미래의 중국에 대한 기획을 둘러싼 문제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19세기 중엽에서 1920년대 초까지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서양의 민주 제도를 표상하는 방식을 주로 개념의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중국과 서양의 만남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양의 사상과 제도를 수용하는 일은 곧 중국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왕이 통치하는 군주제도 아래에서 '민주'라는 말은 금기에 가까운 민감한 표현이었다. 정치체제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권력의 소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다. 청말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democracy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과정은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서양을 이해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제도가 왜 중국에 필요하고 종래의 군주제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물어가는 내적 반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주제 혹은 공화제 등 서양으로부터 학습한 언어들에 중국에서 지적 담론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민주를 정당화하는 논리 및 민주에서 표상된 민의 정치적 위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대 중국의 ‘민주’ 표상과 체험

아편전쟁 이후로 청조의 관료 혹은 지식인들은 서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천하체제와 화이론을 바탕으로 천조(天朝)라 불리던 청조가 중국 밖에 있는 해외의 사정에 관심을 갖고서 서양을 학습하게 된 것이다. 위원(魏源, 1794-1857)의 『해국도지』(50권 본, 1843년; 60권 본, 1847년; 100권 본, 1852년), 서계여(徐繼畬, 1795-1873)의 『영환지략』(1844년 초고, 1848년 간행) 등과 같은 인문지리서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간행되었다. 이들 서적은 명청시대 이래로 전해져 온 전적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서양에 관한 지식을 수록했다. 이들 서적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편찬된 것이었지만, 중국 밖의 세계를 보는 관찰자의 시선을 포함하고 있었다.

위원은 『해국도지』에서 미국이 프랑스와 협력하여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을 용감하고 지혜롭다고 소개하면서 선출된 대통령[大酋]이 27 개주를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높이 평가했다. 즉 대통령이 세습하지 않고 4년마다 교대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실현[公]이며, 국사의 처리과정에서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며[三

占從二) 선출된 국회의원(하원)의 의견을 따른다는 점에서 전체 의견의 수렴(周)이라고 평가했다.¹⁾

고대 중국에서 유교의 정치적 이상인 대동은 천하위공(天下爲公)으로 설명되었다. 한 대의 주석가인 정현(鄭玄)이 공(公)을 공(共)으로 해석한 것을 고려하면²⁾, 천하위공은 천하가 권력을 차지한 왕실의 사적인 소유가 아니라 전 인민의 공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논어』에서는 군자의 덕성으로서 주이불비(周而不比)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희는 주(周)를 보편(普遍)으로 비(比)를 편당(偏黨)으로 해석하였다.³⁾ 즉 일의 처리에 있어서 사적인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위원이 아편전쟁 직후에 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제와 국회제도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서양의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공(公)과 주(周)라는 중국의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계여는 『영환지략』에서 영국의 의회 제도를 거론하면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수도에 의회가 있으며 둘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상원이요 다른 하나는 하원이다. 상원에는 작위를 가진 자와 귀족, 목사가 있고, 하원에는 서민이 추천하고 선택한 재능과 학식이 있는 자가 있다.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왕이 재상에게 명령하고 재상은 상원에 알려 공적인 논의를 모으고 조례를 참고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상원은 다시 하원에 알려 반드시 하원 대다수의 승인을 거친 뒤에

1) “外大西洋墨利加洲總”, 『海國圖志』, 下 卷59(岳麓書社, 1998), p. 1611.

2) “禮運”, 『禮記注疏』(清阮刻十三經注疏本, 中國基本古籍庫).

3) “爲政”, 『四書章句集注·論語』(阮刻十三經注疏本, 中國基本古籍庫).

시행하며, 만일 거부하면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민간에 좋은 일이나 폐단이 있어 제기하거나 폐기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하원에 설명하며, 하원은 면밀히 검토하여 상원에 보고하고, 상원은 자세히 논의하여 실행 가능하면 재상에게 보고하고 왕에게 전달하며,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답한다. …… 대체로 형상(刑賞), 정벌(征伐), 조례(條例) 등의 사안은 상원이 주관하고, 증감, 과세, 행정, 예산 등의 사안은 하원이 주관한다. 이러한 의회제도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⁴⁾

서계여는 영국의 의회를 소개하면서 의회를 공회소(公會所)로, 그리고 상원과 하원에 대해 각각 작방(爵房)과 향신방(鄉紳房)으로 번역했다. 상원을 귀족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하원을 중국에서 지역의 질서 유지와 여론 형성을 담당했던 향신의 모임으로 이해한 것이다. 한편 그는 위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미국을 소개하고 난 뒤에 추가 해설을 달아 특별히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영웅적인 행위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 대통령이 직위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선거제도를 확립한 것에 대해 천하위공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대(요·순·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뜻”⁵⁾이라고 설명했다. 왕조국가에서 권력을 세습하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가 유교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초기에 간행된 인문지리서의 제목이 ‘해국’, ‘영환’ 등 전통적인 어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 서적들이 여전히 중화의식을 바탕으로 중국 밖의 세계를 조감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양의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제도와 의회제도 등이

4) “英吉利國, 『瀛環志略』卷七(臺灣商務印書館, 1986), pp. 602-603.

5) “北亞墨利加米利堅合衆國”, 『瀛環志略』卷九(臺灣商務印書館, 1986), p. 695.

서양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교의 정치 이념에 합당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교의 이념이 서양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은, 바꾸어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현재 그러한 이념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적이 해외의 사정을 중국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저자의 시선은 선거와 의회 등 서양의 민주적인 정치 질서에 있었다. 왕조체제에서 이러한 시선은 유교적 원리에서 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질서에 위협적인 요소를 숨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왕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더구나 최고통치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왕위 세습제 아래에서는 대역부도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원과 하원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종래에 왕조체제 하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왕권에 대한 견제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밖의 세계로 나가보지 않았던 위원이나 서계여와는 달리 1860년대에 이르러서는 직접 외국을 견학하고 유럽의 정치를 체험하는 관료와 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영국의 선교사 메더스트(W. H. Medhurst, 1796-1857)가 상해에 설립한 묵해서관(墨海書館)에서 일하면서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소속의 선교사로 홍콩에 와 있던 제임스 레게(James Legge, 1815-1897)와 함께 영국을 돌아보고 온 왕도(王韜, 1828-1897)는 당시 유럽의 정체를 군주국, 민주국, 군민공주(君民共主)의 국가로 분류했다. 즉 그는 러시아·오스트리아·프러시아·터키 등을 군주국으로, 프랑스·스위스·미국 등을 민주국으로, 영국·이탈리아, 스페인·포르투갈 등을 군주와 민이 함께 정치를 주관하는 군민공주의 나라로 분류하였으며, 각국의 최고 통치자의 호칭인 엠퍼레(恩伯臘), 프레지

던트(伯理璽天德), 킵(京)을 중국의 경우와 대비하여 황제, 통령, 왕으로 설명했다.⁶⁾

왕도의 정체 분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세 가지 형태 가운데 군주국과 민주국을 비판하고 군주와 인민이 함께 통치하는 군민공주 국가를 이상적인 체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위에서 정치를 주관하고 많은 관리와 모든 백성이 아래에서 바쁘게 일하며 명령이 내려오면 반드시 실행하고 지시가 내려지면 아무도 어길 수 없는 것이 군주제이다. 국가에 일이 있을 때 안전을 의회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며 통령은 단지 의견을 종합할 뿐인 것이 민주제이다. 조정에 군대와 형벌, 예악과 상벌 등 정치적 현안이 있으면 반드시 상하의원에 여러 사람을 모아서 논의하며, 군주가 가하다고 하나 민이 거부하면 실행할 수 없고 민이 가하다고 하나 군주가 거부하면 또한 실행할 수 없다. 반드시 군주와 민의 의견이 서로 같아야 결정을 널리 반포할 수 있다. 이것은 군민공주제이다. 어떤 논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군주가 주인이 되면 요순과 같은 군주가 재위할 때라야 비로소 정치가 안정되고 오래 갈 수 있다. 민이 주인이 되면 법제가 지나치게 변경되고 정책의 의지가 한결같기가 어려우며 결국에는 윤패가 없을 수 없다. 오직 군주와 인민이 함께 다스려야 상하가 서로 통하고 민의 숨은 뜻이 위로 전달되고 군주의 은혜가 아래에 미치게 되어 군주와 신하의 논의가 화합할 수 있으므로, 이는 마치 중국의 삼대 이전에 내려오던 취지와 같다. 삼대 이전에는 군주와 민이 가까워서 세상이 안정되었고 삼대 이후로는 군주와 민이 날로 멀어져 다스리는 방식이 옛날보다 못하게 되었다.⁷⁾

6) 王韜, “重民下”, 『韜園文錄外編』(自序: 1883,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p. 34.

7) 王韜, “重民下”, 『韜園文錄外編』(自序: 1883,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p.

왕도는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의 자강을 꾀하고자 한 양무운동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지만 그는 군사제도와 무기의 개량, 광산의 개발과 상업의 활성화 등의 정책으로 중국의 부강을 실현하고자 했던 당시의 개명적인 지식인과 당국의 정책을 과감히 비판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부강을 실현하는 지엽적인 방법이며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영국이 의거하고 있는 것은 상하의 의견이 서로 통하고 군주와 민 사이가 친밀하여, 근본이 강하여 나라가 평안하며 오래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⁸⁾ 라고 하면서 영국을 개혁의 표본으로 삼을 것을 제시했다. 왕도가 영국의 군민공주를 높게 평가한 것은 영국의 의회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서양 국가가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군사력이 우수한 것은 실제로는 “군민일심”에 의한 것이며, 이는 곧 의회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중국이야말로 “민의 욕구를 위에서 찾아서 해결하지 못하고 민이 싫어하는 것을 위에서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⁹⁾라고 분석했다.

III. 민주주의 유교적 정당성

1. 유교적 이상_군민공주론

19세기 말 중국에서 서양을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 부강으로 표상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서양의 국가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원리에서 부강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한 것은 1890년대부터 시작한 변법운동

34-35.

8) 王韜, “紀英國政治”, 『韜園文錄外編』, 卷4, p. 156.

9) 王韜, “達民情”, 『韜園文錄外編』, 卷3, p. 97.

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주장이다. 청조의 제도개혁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강유위(康有爲, 1858-1927)와 양계초(梁啓超, 1873-1929)가 광서제의 권력을 발판으로 삼아 입헌군주제로의 정체의 변화를 시도한 무술년의 변법운동이었다. 그렇지만 무술변법은 1870년대부터 시작된 왕도와 정관응(鄭觀應, 1842-1922) 등 초기 변법론자들의 서양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영국회사에 무역 담당으로 고용되어 중국과 서양 사이에 무역 업무를 도와주던 정관응은 해외의 사정을 직접 견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는 왕도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의 국가 형태를 군주, 민주, 군민공주로 분류하였으며, “군주는 권력이 위에 치우치고, 민주는 권력이 아래에 치우치며, 군민공주는 권력이 공평하다.”¹⁰⁾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양의 의회제도에 관해 상세한 글을 남겼으며, “의회야말로 정사를 공정하게 논의하는 장소이며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고 여러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여 인사와 행정이 모두 지극히 공정하니 제도가 실로 좋고 의도가 실로 훌륭하다.”¹¹⁾라고 평가하면서 의회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의회의 설립은 본래 대공무아와 상하일체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의회(公議堂)를 정사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의회가 있으면 군주가 민을 학대할 수 없고 민이 스스로 충심으로 위를 받들게 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인가, 이야말로 삼대 이전의 유풍이로다.”¹²⁾라고 하면서 의회제의 장점을 열거하였다. 여기에서도 유교적 이상인 공공의 실현과 군신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의회가 정당화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유교적 이념인 삼대의 이상을

10) 『盛世危言』「議院下」, 夏東元 編, 『鄭觀應集』 上冊(上海人民出版社, 1982), p. 316.

11) 『盛世危言』「議院上」, 『鄭觀應集』 上冊, p. 311.

12) 『盛世危言』「議院下」, 『鄭觀應集』 上冊, p. 318.

바탕으로 군민공주의 정치형태를 바람직한 정체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의 의회제도가 아니라 두 나라의 제도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영국과 독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의회는 민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민권이 과중하고, 프랑스의 의회는 프랑스인의 기질로 인해 소란한 풍조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¹³⁾

무술변법 이전에 서양의 정치사회제도에 관심을 갖고 청조의 개혁을 주장하던 초기 변법론자들, 즉 진규(陳虬), 탕진(湯震), 진치(震熾) 등은 대체로 정관옹과 유사한 견해를 지녔으며, 그들은 의회가 상하의 의견을 소통하고, 언로를 열어주고, 천하를 공으로 삼는 완미한 제도라고 생각했다.¹⁴⁾ 초기 변법론자들이 서양을 통해 청조의 변혁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시선은 서양의 의회제도에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회의 도입을 강조하였지만, 민주주의 정체에 대해서는 인민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중우정치에 가까운 것으로 무질서한 혼란 상태로 이해했고¹⁵⁾, 군주와 민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군민공치 혹은 군민공주를 유교적 삼대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들이 서양의 민주제도 그 자체에

13) 『盛世危言』「議院上」, 『鄭觀應集』 上冊, p. 312.

14) 黃克武, “清末民初의 민주思想: 意義與淵源”, 『中國現代化論文集』(台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1).

15) 선교사들의 이중언어 사전의 용례를 보면, “既不可無人統率, 亦不可多人亂管”(馬禮遜, 『五車韻府』, 1822), “衆人的國統, 衆人的治理, 多人亂管, 小民弄權”(麥都思, 『英漢字典』, 1847), “民政, 衆人管轄, 百姓弄權”(羅存德, 『英華字典』, 1866) 등으로 되어 있다. Democracy의 번역 내용을 살펴보면, ‘民主’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다수인의 통치로 인해 권력의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지어 소인 혹은 백성들에 의해 권력이 농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초기 변법파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 ‘의회’ 등의 중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로서는 方維規, “議會, 民主與共和觀念在西方與中國的嬗變”, 『二十一世紀』 總第58期(2000. 4) 참조.

관심을 가졌다고보다는 민, 특히 향신의 정치 참여를 통해 종래의 폐색된 군주제 하의 정치 형태를 보강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2. 공자와 민주

중국에서 서양의 근대적 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먼저 제기된 물음은 그것이 과연 유교의 가르침과 양립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서양의 가치가 유교의 이념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중국철학의 기반 위에서 논증하고자 한 것은 무술변법에 참가하였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담사동(譚嗣同, 1866-1898)의 『인학(仁學)』이었다. 그는 유교의 ‘인(仁)’에 대한 해석 가운데 특히 ‘만물일체’로 해석하는 학설에 주목하면서, 인의 의미를 ‘통(通)’, 즉 소통으로 해석하고 인의 확장을 평등으로 보았다. 나아가 그는 중국과 외국, 상하, 남녀, 나와 남 사이의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 공자의 본래 가르침이라고 주장했다.¹⁶⁾

『인학』은 제목으로 볼 때는 유교의 인에 대한 해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중국에 소개되어 있던 몇몇 종류의 서양 사상을 원용하면서 유교의 인 개념을 새롭게 해석한 저서이다. 그는 선교사들의 저술을 통해 기독교의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자주지권(自主之權)’ 개념을 수용했다. 이 용어는 『만국공법』을 비롯한 당시 선교사들의 저술에서 liberty의 번역으로 등장했다. 근대 중국의 사상가 중에서 ‘自主之權’이라는 개념에 일찍이 주목한 자는 강유위였다. 그는 서양 선교사들의 저작에 보이는 ‘자주’ 혹은 ‘자주지권’ 등의 개념에 주목하였고, 초기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실리공법전서』에서 “인간은 자주지권을

16) 蔡尙思·方行 編, “仁學”下, 『譚嗣同全集』(中華書局, 1991), p. 291.

갖고 있다”¹⁷⁾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천부적인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담사동은 아울러 그는 『장자』의 ‘재유(在宥)’ 개념을 서양의 ‘자유’로 해석한 강유위의 학설을 받아들였다. ‘재유’는 『장자』 외편의 편명이며 “천하를 있는 그대로 둔대(在宥)고는 들었지만 다스린다고 들은 적은 없다.”¹⁸⁾라고 하는 첫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작위적 통치 행위와 대비되어 사용된 ‘재유’는 『장자』에서 무위 정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강유위는 통치자의 간섭이 없다는 점에서 ‘재유’를 자유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¹⁹⁾ 이처럼 담사동은 인을 소통과 평등으로 해석하고 한편으로는 자유를 간섭의 부재 그리고 천부적 권리라고 이해하면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세계야말로 공자가 목표로 삼았던 인정(仁政)의 이념이요 민주(民主)의 세계라고 해석했다.

담사동이 이처럼 공자의 사상을 민주와 평등이라는 서양의 정치이념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게 된 것은 유교의 역사에 대한 그의 해석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그는 “공자가 처음에 가르침을 세웠을 때는 고학(古學)을 배척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혁했으며, 군주 통치를 제거하고 민주를 주창했으며,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는 일에 급급하게 행동했다. 순자를 따르는 학문이 진정한 뜻을 없애버리고 피상적인 가르침에 집착하여 오히려 군주에게 무한한 권력을 부여하여 공자교를 내세워 천하를 제압하도록 했다.”²⁰⁾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역사에서 강력한 군주제의 출현을 옹호하는 이론적 기반이 순자의 학문에

17) 康有爲, 『實利公法全書』 “總論人類門”, 『康子內外篇(外六種)』(中華書局, 1988), p. 36. 강유위의 자주지권 개념에 대해서는 양일모, “번역의 사상사 -강유위와 엄복”, 『중국학보』, 제40집(1999) 참조.

18) 『南華真經』卷第四, 『莊子外篇·在宥』, 四部叢刊景明世德堂刊本, 中國基本古籍庫.

19) 康有爲, 『論語注』卷5, 『公治長』, (中華書局, 1984), p. 61.

20) 譚嗣同, 『仁學』下冊, p. 337.

있다는 주장은 강유위 혹은 그의 제자인 양계초에게서도 나타나는 주장이므로 그의 독자적 해석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렇지만 초기 변법론자들이 서양의 의회제도가 상하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유교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답사동은 유교의 중심 사상인 인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유와 민주라는 서양의 이념이 공자의 원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교와 민주제의 등가성을 주장하는 답사동의 주장은 무술변법을 시도한 강유위의 관점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금문경학의 관점에서 강유위는 공자를 ‘탁고개제(托古改制)’의 소왕(素王)으로 규정하였으며, “요순은 민주를 시행해서 태평세를 만들었으며, 인도의 지극한 인물로서 유학자가 모두 최고로 받들고 있다. …… 『춘추, 『시경』 등은 모두 군주를 말하고 있지만, 『상서』의 「요전」은 특별히 민주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²¹⁾라고 하면서 공자의 원래 가르침이 민주라고 주장했다. 공자를 개혁론자로 규정하는 금문경학은 강유위를 비롯한 무술변법의 주창자들이 시도한 변법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무술변법은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바탕으로 민권을 주장하고 나아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한 전반적인 개혁론이었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는 의회가 공자의 원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다.

강유위는 춘추공양학에 의거한 거란(據亂)-승평(昇平)-태평(太平)이라는 삼세진화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단계론을 토대로 서양의 국가형태를 군주전제, 입헌군민(立憲君民), 민주로 분류했다. 정치 체제나 국가의 형태를 유형으로 분류하는 이론들은 원래 서양의 정치학에서는 정적인 분석 이론이지만, 그는 3가지 정체를 시계열상의 발전

21) “孔子改制法堯舜文王考”, 『孔子改制考』 卷十二(中華書局, 1988), p. 288.

이론으로 이해하였다. 즉 그는 아메리카의 화교들을 대상으로 지금의 중국은 혁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입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유명한 연설문 속에서, “거란세는 일국 중심의 군주전제 시대이며, 송평세는 헌법을 세워서 군주와 신민의 권리를 정하는 시대이며, 태평세는 민주와 평등의 대동 시대이다.”²²⁾라고 설명하였다. 강유위는 군주전제·입헌·민주라는 3 종류의 정체가 반드시 순서대로 실행되어야 하며, 만일 단계를 뛰어 넘어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민주와 태평의 이념이 공자의 원래 가르침이지만, 이는 미래에 구현되어야 할 목표이다. 바꾸어 말하면, 무술변법의 운동은 그러한 최종목표에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서 입헌군주제를 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가 정치적인 단계에 따라서는 제약될 수도 있는 이념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무술변법은 군주 전제를 비판하면서 민권을 주장하고 민권의 실현을 위해 의회의 개설과 군주입헌을 주장했다. 1890년대에 주창되기 시작한 민권론은 군주입헌의 주장이었지만, 청조의 당국자로부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당시 호광총독을 맡고 있던 장지동(張之洞 1837-1909)은 “군신의 강령을 안다면 민권의 주장은 실행될 수 없다.”²³⁾라고 하면서 민권의 주장이 유교가 제시하는 삼강(三綱)의 윤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시의 지사들이 외국인에게 침탈당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에 울분을 토하면서 변법과 상공업의 개혁을 주장하고 민권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권의 주장은 소란을 불러일으킬 뿐으로 백해무익한” 주장이며, “민권의 학설이 제창되면 우민이 기뻐하며 난민이 일어나 기강이 행해지지 않고 사방에서 대

22) “答南北美洲諸華僑論中國只可行立憲不可行革命書”(1902), 湯志鈞 編, 『康有爲政論集』(中華書局, 1980), p. 476.

23) “明綱”, 勸學篇, 陳山榜 評注, 『張之洞勸學篇 評注』(大連出版社, 1990), p. 35.

란이 일어날 것이다.”²⁴⁾라고 비판했다.

민권론에 대해 제기된 청조 당국의 비판에 대해 양계초가 선택한 전략은 민권과 민주를 구별하는 방법이었다.

무릇 민권과 민주는 그 혼고가 전혀 다르다. …… 지금 민권을 시행하면 국가의 기반이 공고해지고 군주의 지위가 존엄하게 됨이 이전에 비해 수배에 이른다. 그렇다면 국가를 보존하고 황실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찌 민권을 일으키는 일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저 어리석고 독선적인 무리들이 민권과 민주를 혼동하여 같은 것으로 보아 독별과 전갈이라 하고 독사라 하여 군주와 재상의 귀를 미혹되게 한다면, 이는 천부인권의 이익을 막고 국가의 원기를 망가뜨려 다시 복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호광(胡廣)과 풍도(馮道)의 무리가 서양의 법제도 모르면서 스스로 유신이라 명하고 있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²⁵⁾

호광은 중국의 동한시대의 관료이며 풍도는 오대 시대의 관료로서 누대에 걸쳐 관직을 지킨 인물이다. 양계초는 장지동 등을 비롯한 청조의 관료들에 대해 호광과 풍도와 같은 부류로 권력 유지에 집착하는 인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민권 비판에 대해 또 다시 비판을 가하고자 했다. 양계초는 영국과 일본에 대해 민권이 발달한 국가로 지목하고 프랑스와 러시아에 대해서는 민권을 압제하는 국가로 분류한 뒤, 민권을 진흥하는 것이 오히려 군주에게 이롭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그는 청조 당국이 민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황제의 권한과 지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따라서 그는 초기 변법론자들이 제시한 군주, 군민공주, 민주의 세 정체를 군주전제정체(러

24) “正權”, 勸學篇, pp. 56-57.

25) “愛國論”(1899), 『飲冰室文集』 卷3, 『飲冰室合集』(中華書局, 1989), p. 76.

시아), 군주입헌정체, 민주입헌정체(미국, 프랑스)로 다시 설정하면서 군주입헌이 중국의 현실에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우리들이 민권을 주창한지 이제 10년이 되었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홍수와 맹수의 재난과 같이 염려하고 비탄하고 두려워한다. 이는 괴이한 일이 아니다. 대체로 민권과 민주를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들이 추대하고 있는 군주를 원수처럼 대할 것으로 보고 민권을 염려하고 비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주의 입헌이 있고 민주의 입헌이 있는데 이 둘이 다 같이 민권이지만 여기에 이르는 길은 역시 방식이 다르다. 나라가 민주로 변하는 것은 반드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원인이 있다.²⁶⁾

양계초가 청조의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제시한 민권과 민주 의미론적 차이를 제시하고 민권의 의미를 온건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조체제 하에서 군주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그만큼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 변법론자들이 제시한 민권론에서 ‘민’의 의미가 민주주의의 ‘민’이라기보다는 중국의 향신들의 참정권을 의미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유위 등이 변법운동에서 제기한 민권은 실제로 신권(紳權)이었다.²⁷⁾ 실제로 그의 변법론은 “민권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먼저 신권을 일으켜야 하며, 신권을 일으키고자 하면 학회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²⁸⁾ 여기

26) “立憲法議”(1900), 『飲冰室文集』 卷5, p. 4. 양계초는 「입헌법의」(1901)를 집필하기 2년 전에 쓴 글에서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제시한 정체 분류를 군주·민주·군민공주로 이해했다.(「文野三界之別」, 『飲冰室自由書』, 『飲冰室專集』 卷2, p. 9).

27) 湯志鈞, 『康有爲與戊戌變法』(中華書局, 1984), p. 246.

28) “論湖南應辦之事”(1898), 『飲冰室文集』 卷3, p. 43.

서 학회는 당시 호남성에 담사동, 당재상(唐才常) 등이 설립한 남학회(南學會)와 같이 관료와 신사 계층의 계몽을 중심으로 학술활동과 정치활동을 겸한 단체를 말한다.

3. 혁명과 민주

1903년을 전후로 중국에서는 ‘혁명’이라는 용어가 청조 타도를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강유위, 양계초 진영에서 제시한 군주입헌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만주족 왕조인 청조를 타도하여 민주 공화 국가를 실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절강,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로 중국의 남부 지역의 청년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05년 손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중국동맹회를 진지로 청조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활동을 개시하면서 ‘혁명’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들은 변법파와 마찬가지로 민권을 주장하면서도, 나아가 자유와 평등, 박애 등의 언어를 빈번하게 외치며 민주를 선전하며 전제를 공격하면서 혁명을 고취했다.

‘혁명’은 청조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구두선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것을 흡수하는 용어가 되었다. 일찍이 손문은 1903년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화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주정부를 전복하고 민국을 건설한다. 혁명이 성공한 날에는 미국을 본받아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며, 전제를 폐지하고 공화를 실행한다.”²⁹⁾라고 외쳤다. 민국을 실현하자는 주장은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를 회복하고, 민국을 창립하고, 평권지권을 실행한다.”³⁰⁾는 중국동맹회의 강령에도

29) “在檀香山正埠荷梯厘街戲院的演說”(1903), 『孫中山全集』 第一卷(中華書局, 1985), p. 226.

30) 憑自由, “同盟會四大綱領及三民主義溯源”, 『革命逸史』 第3輯(中華書局, 1981),

포함되었다. 그들은 강유위 등 변법론자들이 혁명은 프랑스혁명에서 보듯이 유혈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중국에서는 온건한 방법으로 입헌군주제를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혁명을 통해 공화 체제의 민국을 실행하고자 한 것이다.

혁명을 통해 청조를 전복하고자 하는 진영은 ‘혁명파’로 불리기도 했다. 그들은 일본을 통해 수용된 서양 사상가들, 즉 밀, 루소, 몽테스키외 등의 저서를 자주 인용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만들어냈고, 심지어 초기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폭동, 암살 등의 강경한 수단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국가의 형태를 전제, 입헌, 공화로 분류하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여 전제에서 공화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들의 이러한 정체 분류 방식은 양계초의 정체 분류를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변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중국의 현실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현 단계의 목표를 군주입헌으로 설정했다면, 그들은 군주입헌을 거치지 않고 이민족인 청조를 타도하는 민족혁명과 왕조를 타도하는 민주혁명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손문은 이러한 논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아직 유럽의 공화 정치를 시행할 수 없다. 야만에서 전제로, 전제에서 입헌으로, 입헌에서 공화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의 순서이므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은 군주입헌이 가장 적합하고 절대로 공화를 시행할 수는 없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중국의 앞길은 철로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때 철로를 만들면서 최초에 발명된 열차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개량된 가장 편리한 열차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

은 부녀자나 어린아이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주입헌이 중국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기다려 결정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³¹⁾

손문의 주장은 청조로 상징되는 군주제를 타도하고 공화제를 단번에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혁명과 진영에서는 대체로 청조를 타도한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제를 구상하면서 이를 공화정이라 명명하고자 했다. 『경세중』, 『사자후』 등 청조 타도를 외치는 진영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진천화(陳天華, 1875-1905)도 손문과 마찬가지로 미국식 대통령제를 혁명 이후의 대안으로 간주하면서 중국이 민주 정체로 개혁할 필요성을 강변했다.

유럽에서는 민권을 말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민권을 말할 수 없으며, 유럽에서는 민주를 실행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민주를 실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는 누구라도 분명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용렬한 견해를 펼치는 자가 있다. “열강이 사방에서 틈을 노리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전제를 시행해도 제대로 될지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의견의 혼란을 일으키는 단서를 만들고 분산되는 형세를 일으킨다면, 이는 시국을 구하자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가?” 이는 우리들의 주장을 무정부주의로 오해하고 민주정치를 방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들은 고원한 논의나 시의에 적절하지 않은 담론으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자 하지 않으며, 시세를 잘 살펴서 실행 가능한 것을 추구해서 말하고자 한다. 저 무정부주의를 어찌 우리들이 지금 주장하겠는가? 민주정치를 방임이라고 간주한다면, 프랑스, 미국, 청조, 러시아 네 나라를 비교해보지 않겠는가? 교육의 의무화, 내정의 정비, 질서의

31) “在東京中國留學生歡迎大會的演說”, 『孫中山全集』 第一卷(1905), p. 280.

유지를 어떤 나라가 실행할 수 있고 어떤 나라가 실행할 수 없는지는 지혜로운 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만일 중국이 공화제로 개혁한다면, 일으킬 것은 곧장 일으키고 고칠 것은 곧장 고쳐 신속하게 진행하여 털끝만큼도 가차 없으니, 어찌 지금의 정부와 같이 허술하게 처리하겠는가? 우리들은 총체의 자유를 추구하며 개인의 자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로 공화를 해석하고자 한다면, 작은 잘못으로 인해 매우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공화는 다수인을 위해 고려한 것이므로 소수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³²⁾

진천화는 양계초와 같이 민주와 민권을 굳이 구별하지는 않았고, 중국에서 민주와 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화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의 인용에서 진천화는 혁명파가 구상하는 공화정에 대한 당시의 비판 - 혁명파의 주장은 프랑스혁명과 같은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 - 에 대응하기 위해 총체의 자유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민권과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 공화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열강의 침략이라는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의 안정적 질서 확보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개인의 자유마저 구속될 수 있는 총체적 자유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에 포함된 개인의 정치 참여라는 측면보다는 민주를 통한 국가의 존립과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그가 제시한 총체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정은 자유와 민주 원칙에서 이탈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陳天華, “論中國宜改創民主政體”(1905), 張枬·王忍之 編,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 卷2(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77), p. 124.

IV. 민주와 유교의 갈등

중화민국이 성립되어 정치체제상으로는 민국이었지만 민주주의 실현은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1916년 원세개는 민주국의 총통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황제가 되고자 하던 야망을 꿈꾸다가 죽었고, 이어서 중국은 군벌이 지배하는 내전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1917년에는 장훈(張勳)이 구식 군복과 변발을 한 군대를 이끌고 신해혁명으로 쫓겨난 마지막 황제 부의(溥儀)를 다시 황제로 추대하고자 한 북벌의 쿠데타를 일으켰고, 군주입헌의 주장을 했던 강유위도 이에 동조하였다. 손문은 민국의 초대총통에서 쫓겨난 뒤 광둥에서 광동군정부를 조직하여 북경정부에 대항하면서 공화제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말년에 지금까지 주장해 온 삼민주주의의 학설을 체계화하면서 중국의 유교적 전통 속에서 민권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천년 전에 공자와 맹자는 민권을 주장했다.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공의 것이 된다.”라는 공자의 말은 곧 민권을 주장하는 대동세계이다. 또 공자가 “언제나 요순을 거론했다”고 한 것은 요순이 천하를 자기 개인의 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요순의 정치는 명의상으로는 군권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민권을 행한 것이다. 따라서 공자가 줄곧 그들을 숭양한 것이다. 맹자는 “민이 귀하며 사직은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라고 하고, 또 “하늘은 우리 민을 통해 보고, 하늘은 우리 민을 통해 듣는다.”라고 말하고, 또 “한명의 범부 주(紂)를 죽였다고 들었지만 군주를 시해했다고 듣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이 이천년 전에 이미 민권에 대한 견해를 생각해낸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 때는 실행하지 못했고,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민국을 성립시켜 민권을 실현한지 150년이 되었다. 중국의 고대 사람들도 이러한 사상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들이 국가의 영원한 평화와 안정, 인민의 안

락을 바라고 세계의 조류에 따르기 위해서는 민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³³⁾

위에서 거론된 공자와 맹자의 말은 주로 유교의 민본주의적 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되는 구절들이다. 손문은 이러한 유교의 민본주의적 논거를 동원하여 자신의 민권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민본이 곧 민권이며 이는 공화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찍이 강유위, 양계초 등이 변법을 주장할 때부터 제기되었다. 당시 유교를 민본주의 혹은 민권론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제기되자, 호남성 지역의 보수적 인사인 엽덕휘(葉德輝, 1864-1927)는 반론을 제기했다. 즉 그는 “백성이 귀하게 되는 것은 임금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지 백성이 스스로 귀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인민의 권리(民權)를 귀하게 여긴 것도 아니다.”³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맹자의 주장을 군주제 하의 군-신-민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떠나서 해석하면 곡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교의 민본적 특성이 인민의 권리, 나아가 인민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³⁵⁾

33) “三民主義・民權主義”, 『孫中山全集』 第9卷(1924), p. 262.

34) 葉德輝, “正界”篇, 『翼教叢編』(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70), p. 95.

35) 근대 일본에서 ‘민본주의’는 데모크라시의 번역으로 등장한 용어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에 들어와 데모크라시와 천황주권을 조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쿄대학 철학과 교수인 이노우에 테쓰지로(井上哲次郎), 천황주권설을 주창한 우와스키 신키치(上杉愼吉), 『만세보』 잡지의 사장으로 소설가인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淚香), 이 잡지의 기자인 가야하라 카잔(茅原華山) 등이 ‘민본주의’를 주장했다. 요시노 사쿠조(吉田作造)는 1916년 『중앙공론』 1월호에 발표한 「헌정의 본의를 설명하며 유종의 미를 이루는 방법을 논함」에서 “국가의 주권은 법리상 인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는 군주국체를 취하는 일본에서 적절하지 않고 “국가 주권의 활동의 기본적 목표는 정치상 인민에게 있다”는 의미로서 민본주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천황

민본과 민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20년대에 이르러 양계초로부터 제기되었다. 양계초는 1922년에 행한 강연에서 “중국인은 민중정치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민중 자신이 정치를 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 소위 by the people(民治)의 원칙은 중국에서 출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설상으로도 전개되지 못했다.”³⁶⁾라고 서술했다. 훗날 양수명도 양계초의 견해에 이어 “중국에서 정치상 민유(民有, of the people), 민형(民享 for the people)의 의미는 일찍이 발휘된 적이 있지만, 이삼천년 동안 민치의 제도는 전개되지 못했다. 어찌 제도만 설립되지 않았겠는가? 누가 여기에 생각이 미칠 수 있었겠는가? 이 세 가지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앞의 두 가지는 맹자에서부터 황종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발휘되었지만, 이 한 가지는 결국 수천 년 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 어찌 괴이한 일이 아닌가?”³⁷⁾로 정리하고 있다.

민권론을 제창한 양계초는 비록 현실적으로 신권을 주장하는데 그쳤으며, 맹자 이래의 민본적 정치 이념이 서양의 민주주의와 등치성을 가지기 어려운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맹자는 중국에서 민권의 비조인가라고 물었다. 맹자가 말한 민정(民政)이 오늘날 서양학자가 말하는 민정과 같은지

주권과 충돌하는 인민의 주권을 제외하고 “인민을 위한 정치”, “인민에 의한 정치”를 민본주의로 정의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太田雅夫, “大正期におけるデモクラシー訳語考”, 『キリスト教社會問題研究』제13호(1968) 참조. 요시노의 민본주의는 주권에 대한 해석을 보류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민본주의라고는 할 수 있으나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요시노의 민본주의에 관해서는 한정선, “다이쇼 민주주의의 재평가 - 요시노 사쿠조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동양사연구』 제87집(2004).

36) 梁啓超, 『先秦政治思想史』(東方出版社, 1996), p. 192.

37) “中國文化要義”, 『梁漱溟全集』第3卷(山東人民出版社, 1990), p. 252.

다른지 감히 묻고자 한다. 절대로 다르다고 대답했다. 맹자가 말한 민정이라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保民)이요 백성을 기른다(牧民)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한다.”라고 말했고, “하늘이 민을 낳고 군주를 세워 그들을 기르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백성을 어린아이를 간주하는 것이요, 백성을 기른다는 것을 백성을 가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정치체제(保赤政體)라고 할 수 있고 양을 치는 정치체제(牧羊政體)라고 할 수 있다. 백성을 보호하고 기른다는 것은, 폭군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패도와 비교해 볼 때, 그 수단과 의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자유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민은 독립을 귀하게 여기며 권리를 중하게 여기며, 그것은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지나를 보전하는 것이 이것과 어찌 다르겠는가.³⁸⁾

백성을 보호하고 기른다는 것은 유교에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 즉 위민(爲民) 정치를 말한다. 이는 또 포악한 정치를 배제하는 점에서 인정(仁政)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양계초의 해석에 의하면, 중국의 유교가 지향해온 인정과 서양의 자유는 공적인 이익을 실현하고자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유교의 위민, 인정, 나아가 백성을 보호하고 기르는 정치가 통치자의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백성의 권리가 확보되지 못하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가 목민과 보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본적 정치이념으로 구상된 인정이 서양의 민주주의와 다른 점이 “다스리는 자가 권한을 갖고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권리가 없다.”³⁹⁾는 것에서 발견한 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에서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권리의 문제가 제기

38) “自由書·保全支那”, 『飲冰室專集』 卷2(1899), pp. 40-41.

39) “論政府與人民之權限”, 『飲冰室專集』 卷10(1902), p. 5.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V. 맺는말

중국에서 민주주의는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을 통해 수용된 근대적인 제도의 하나로 성립되었다. 아편전쟁 이래로 서양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식인들과 관료들은 서양인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유지해 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세기 중엽 이래로 중국인들이 서양의 정치제도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것은 선거를 통한 최고통치자의 선출 방식과 의회를 통한 민의의 수렴 과정이었다.

천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교적 정치체제 하에서 최고 통치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왕권의 세습을 부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그들은 서양의 정체에 대해 군주제, 민주제, 그리고 군주와 민이 함께 통치하는 군민공주라는 분류를 시도하였고, 군주가 민의를 수용하는 정치를 행하는 군민공주 체제를 수용 가능한 체제로 이했다. 이는 왕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의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왕조체제를 거부하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정체였다. 나아가 서양의 국가 가운데 영국이 군주제를 인정하면서도 의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방식이 유교의 정치적 이상인 삼대의 유훈으로까지 해석되었다.

무술변법의 주창자들이 입헌군주제를 정치적 현안으로 제시한 것도 또한 왕조 체제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물론 입헌군주제가 민권 혹은 민주라는 서양적 개념을 통해 제시되고 한편으로 군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장지동과 같이 현실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은 인민의 정치 참여라는 주장을

강렬하게 비판했다. 양계초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민권과 민주를 구별하고 동시에 군주입헌과 민주입헌을 구별하면서, 군주입헌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군주와 민이 함께 통치하는 정체를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시한 민권에서 민은 인민 전체라기보다는 향신에 한정된 것이었다.

손문을 비롯한 이른바 혁명파들은 청조가 이민족의 지배자이며 동시에 민권을 억압하는 군주제라는 논리를 근거로 들어 이민족의 배척이라는 민족주의와 군주제를 부정하는 민권주의를 주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조체제를 종식시키고 공화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혁명파가 제시한 공화제가 모든 인민의 주권이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혁명의 총아인 진천화가 제시한 총체적 자유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국가의 존립과 건설이라는 국가주의적 발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유교적 사유방식을 기반으로 서양의 민주 혹은 공화제가 유교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유교의 정치적 관점이 서양의 민주적 제도와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지식인이 서양의 정치제도를 이해하면서 자주 제기되는 기본 방식이었다. 중국의 민본주의적 전통과 서양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유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서양의 정치제도를 수용하는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군주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깔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관료로 분류되는 엽덕휘는 이러한 유비 논리가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서양의 민주적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양계초와 양수명 등이 1920년대 이래 유교의 민본주의 전통이 서양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인민의 주권, 인민의 정치참여, 인민의 복리라는 세 측면 가운데 정치 참여라는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파악한 것은 민

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유교적 유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다. 보수적 관료가 민본과 민주주의 등치성에 대해 군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정한 것이라면, 양계초와 양수명의 주장은 유교의 민본에는 인민의 정치 참여라는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서양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진독수가 “서양의 민주주의(Democracy)는 인민을 주체로 하고 있으며 링컨이 말한 인민에 의한 것이지(by people) 인민을 위한다는 것 (for people)이 아니다. [고대 중국에서 말한] 민으로부터 보고 민으로부터 듣는다는 것, 민이 귀하고 군주가 가볍다는 것, 민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두 군주의 사직(즉 군주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산)을 본위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한다는 민본주의는 …… 모두 근본적으로 국민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인민을 주체로 하고 민에 의한다는 주의를 지닌 민주정치와는 전혀 다르다. …… 고대 중국의 민본주의를 현대의 민주주의로 간주하면, 이는 말을 호랑이 가죽으로 씌우는 일이고 실제로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⁴⁰⁾라고 하면서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유비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자 한 것은 인민주권과 인민의 정치참여라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민의 정치참여라는 요소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유비 관계를 주장하는 당시의 정치 세력이 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러한 유비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진독수 등의 신청년 진영은 이미 대중민주주의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주인을 대중으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40) 陳獨秀, “再問東方雜誌記者”, 『新青年』, 제6권 제2호(1919).

참고문헌

- 양일모, “번역의 사상사 - 강유위와 엄복”. 『중국학보』, 제40집(1999).
- 한정선, “다이쇼 민주주의의 재평가 - 요시노 사쿠조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동양사연구』, 제87집(2004). 康有爲, 『康子内外篇(外六種)』(中華書局, 1988).
- 康有爲, 『孔子改制考』(中華書局, 1958).
- , 『論語注』(中華書局, 1984).
- 梁啓超, 『先秦政治思想史』(東方出版社, 1996).
- , 『飲冰室合集』(中華書局, 1989).
- 方維規, 「議會, 民主與共和觀念在西方與中國的嬗變」, 『二十一世紀』, 總第58期(2000).
- 憑自由, 『革命逸史』(中華書局, 1981).
- 徐繼畲, 『瀛環志略』(臺灣商務印書館, 1986).
- 孫文, 『孫中山全集』(中華書局, 1981).
- 『新青年』(上海書店, 1988).
- 葉德輝, 『翼教叢編』(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70).
- 『瀛環志略』(臺灣商務印書館, 1986).
- 王韜, 『韜園文錄外編』(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 魏源, 『海國圖志』(岳麓書事, 1998).
- 張枬·王忍之 編,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77).
- 陳山榜, 『張之洞勸學篇 評注』(大連出版社, 1990).
- 蔡尚思·方行 編, 『譚嗣同全集』(中華書局, 1991).
- 『清議報』(中國近代期刊匯刊, 中華書局, 2006).
- 湯志鈞, 『康有爲與戊戌變法』(中華書局, 1984).
- 編, 『康有爲政論集』(中華書局, 1980).
- 夏東元 編, 『鄭觀應集』(上海人民出版社, 1982).

『海國圖志』(岳麓書社, 1998).

黃克武, “清末民初의 民主思想: 意義與淵源”, 『中國現代化論文集』(台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1).

太田雅夫, “大正期におけるデモクラシー訳語考”, 『キリスト教社會問題研究』, 제13호 (1968).

The Representation of Democracy in Modern China: Minzhu and Minben

Yang Il Mo(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way which Chinese intellectuals express Western democratic institutions from the mid 19th century to 1920',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a conceptual history. It can be said that a process of Chinese intellectuals' concerns with the Western democracy is to understand the western that runs such a system, at the same time to reflect internally for why such a system requires in China and what problems the traditional monarchy have. To understand the West, the political ideology of Confucianism were adopted and utilized frequentl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ain Chinese intellectuals' logic of justifying the western democratic system and Congress, the people's political right represented by democra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the people, examining the modern Chinese intellectual's discourses on the Western polity.

key Words

Democracy in the West and China, Modern China, Confucianism, Congress, Republic, Chinese intellectuals

투고일 : 2015. 04. 15 / 심사(수정)일 : 2015. 05. 19 / 게재확정일 : 2015. 05. 22
--